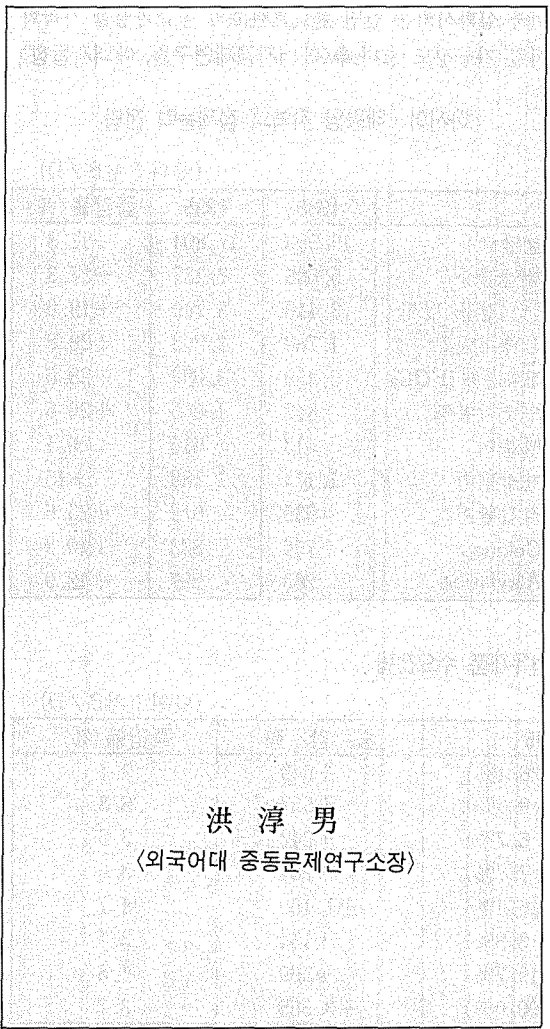


1. 페르시아만의 중요성

페르시아灣은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에너지창고이며 이를 수송하는 국제수로이다. 이는 이 지역이 전세계의 정치·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예민

이라크의 에너지전쟁과 국제정치



洪 淳 男
(외국어대 중동문제연구소장)

한 지역이며 전세계가 정치적, 외교적 역학관계를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 경제위험시대이다.

이점이 페르시아灣의 전쟁성격을 확대하기도 하고 반대로 축소시키기도 하는 신축성의 요인이다.

페르시아만도 지리적으로 東·西를 잇는 요충지이며 멕시코만의 10분의 1정도 크기인 약 7만평방마일이다. 이 灣입구인 호르무즈해협과 오만灣은 인도양으로 곧 바로 이어지는 유럽안보변수로서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였었다. 지금의 미·소협력시대에서는 페르시아만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지역은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라야 100여미터이며 평균 수심이 40미터정도의 낮은 곳이다. 이는 인간의 의지로 이 灣을 침몰된 대형유조선등으로 인위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페르시아만은 전세계확인원유매장량의 70% 이상을 가진 지역이다. 이 지역생산량도 전세계석유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에너지공급원이다.

소련의 경제개혁과 동유럽에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페르시아만의 싼석유는 東유럽의 산업에도 필요한 에너지공급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페르시아만연안국가들이 모두 산유국들이지만 바흐레인 같은 국가는 일일 4만배럴 정도 생산하는 등 생산력 60만배럴이하의 오만, 카타르, 바흐레인3국은 산유빈국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및 아랍에미리트 3국은 산유대국으로서 GCC(페르시아만협력기구) 6개국은 產油富國과 빈국이 3대 3이다. 이외에 사우

디아라비아만큼 영향력을 가진 이란과 이라크가 이 지역에서 GCC회원국이 아닌 채로 존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한 OPEC 영향력에서 이라크와 이란은 이란-이라크전쟁으로 잃었던 국가이익을 찾으려고 불만이 표출되곤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順으로 석유생산능력을 가진 페르시아灣 4국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정책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

석유가격하락을 막으려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기간 자국생산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란과 이라크는 8년 이상의 장기소모전으로 OPEC 高油價政策에 적극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

장기간 값싼석유에너지시대로 1988년 현재 한때는 10달러 이하까지 석유가격이 내렸을 때 에너지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개발효율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1990년대 초반에 제3의 석유파동을 예견하였다. 더욱이 1992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유럽EC통합시기를 국제경제환경변화의 전환점으로 가정적 설정을 하여왔다.

따라서 페르시아灣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소의 협력 시대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지금의 페르시아灣에너지 전쟁에서 페르시아灣의 국제수송로라는 의미의 가치와 산유국안보라는 경제중요성이 크다. 유럽의 산업과 안보를 위한 페르시아灣안보와 국제경제를 위한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 큰 관심사이다.

지금의 石油파동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대한 石油禁輸조치와 파병된 美軍의 연료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유, B-C油등 석유제품을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에너지고가시대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값싼대체에너지개발을 포기한 국제경제가 석유라는 에너지에 의존하는 이상 제한적인 자원부존성격으로 심각한 에너지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산업구조는 값싼 石油를 에너지로 하는 도미노관계이다.

페르시아灣의 石油와 천연가스에너지는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없고 가장 싼 수송비와 생산비로 얻을 수 있는 인류의 에너지이다. 이 지역이 전세계의 일상생활을 위한 젖줄이라는 사실을 에너지위기때마다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2. 아랍의 세력균형과 페르시아灣의 분쟁 변수관계

이슬람세계 또는 아랍세계라고 하는 中東은 오스만 터키제국이 붕괴되면서 과도기적 민족통일단계로 분리된 지역들이 그대로 국가이름을 가지고 존속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을 믿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인들은 단결하여 統一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공동체(움마)건설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랍국가들은 국민의 충성심이 결여되어 있다. 아직도 이슬람으로 몽치고 아랍어를 강조하는 아랍민족주의가 강하다. 호메이니옹의 이슬람原理主義도 궁극적으로는 「움마」의 건설이다.

이와 같은 이슬람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랍세계에서 누가 중심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싸움은 아랍정치엘리트들의 경합현상으로 아랍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쿠웨이트침공으로 시작된 에너지전쟁도 엘리트의식에서 표출된 패권주의정치의 일면이다.

아랍세계는 낫세르혁명(1952년) 이전까지도 군주국정치체제로 친서방정책을 취하는 과거식민지환경의 연속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세력은 고립되어 있었으며 이집트와 이라크가 서로 경합하면서 이끄는 아랍민족주의가 나타났었다. 오스만 터키제국에 접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 하심家は 英·佛의 힘을 이용하여 터키를 붕괴시키려는 아랍민족주의가 강한 반면 이집트를 중심으로 신아프리카국가들은 오스만 터키를 강화시키어 그 힘을 이용하여 英·佛세력을 물리치고 독립하려는 아랍민족주의가 나타났었다.

이는 이집트세력(파라오帝國)과 이라크세력(바빌로니아帝國)간의 경합현상의 세력균형이었다.

낫세르혁명과 이 혁명의 영향으로 시리아와 이라크의 군사쿠데타는 아랍세계에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혁신공화세력과 보수군주세력으로 세력균형의 場이 되었다. 이 틀속에서 지역정치변수와 국제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가이익에 따라서 아랍국가들은 수시로 화합·물리반응인 이합집산식 「헤쳐 모여」 분열을 하여 왔

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밀월관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요르단만이 남은 하심家を 붕괴시키고 사우드왕가를 세웠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세계에서 정통성이 약하다. 요르단은 이집트와 시리아,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자주 왕래하는 약소국가의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금의 이라크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아랍세계에서도 고립되어 있다. 물론 PLO, 알제리, 리비아등의 급진주의자들은 후세인을 닷세르와 같은 아랍민족의 영웅으로 환영하고 있다. PLO는 미·소의 데탕트시대와 유럽統合 및 독일통일, 예멘통일의 분위기에서 3년이상 투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민족 투쟁이 국제여론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망하고 있다. 더우기 아랍의 봉기에 대하여 이집트, 시리아등 전쟁당사국들이 아무런 군사, 정치행동을 하지 않는데 불만과 좌절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사담 후세인이 예루살렘문제를 메카와 메디나와 같은 성지문제로 해방선언과 聖戰을 주장하는 데 팔레스타인민족은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보호자로 후세인을 생각하고 있다.

시리아는 이란-이라크전쟁중에 이란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입장이다.

페르시아灣에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쟁원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라크와 이란간의 분쟁요인은 샤틀 아랍수로, 후레스탄(아라비스탄지방, 쿠르드족, 아부 무사등 3대戰略도서, 바흐레인(이란側領有權主長)등이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간의 분쟁요인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수자원문제, 바아쓰黨이념갈등과 정치엘리트간의 경합, PLO계릴라단체지원문제로 인한 갈등, 石油송유관문제(시리아를 경유하여 터키로 통하는 이라크수송관)등이 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오래 된 영토문제이다. 페르시아灣으로 진출하려는 이라크의 노력은 쿠웨이트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더욱 위협한 도전이다.

산유국들에 대한 비산유국들의 불만과 질시는 지역정치환경에서 질서를 위협한다. 아랍국가들의 질서를 받던 레바논의 혼란은 아랍정치의 좋은 예이다.

페르시아灣에서의 GCC협력관계에서 이라크와 이란이 배제된 것은 페르시아灣의 새로운 정치이슈로 이미

분석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라크의 세력균형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친서방정책으로 이란은 이 지역경찰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부국으로 영향력을 강화시켰으나 이라크는 불안한 정국과 함께 이 지역에서 고립된 정치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3. 이라크의 쿠웨이트侵攻과 領有權主張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侵攻('90. 8. 2)하여 合併한 事件은 國際社會에 심각한 정치파문을 일으켰다. 全世界가 보증하는 UN會員國이며 아랍國家들이 보증한 主權國家가 軍事強大國에 의하여 정복당하는 쿠웨이트運命을 지금의 國際政治理論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은 정보보다는 군사력을 이용하여 정치이익을 찾은 이스라엘정치전략이었다.

인구 2백만중 30% 정도가 쿠웨이트人이라는 인구비율과 2백만이상의 외국인들이 거주하였던 쿠웨이트는 금융가와 왕궁과 유전지대만을 가진 특이한 도시국가이며 모든 것을 돈으로 사오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국가였었다.

지리적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이라크에 접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정치보호막으로 이라크보다는 사우드王家를 택하여 親사우디아라비아정책을 썼었다.

쿠웨이트는 주변아랍국가들인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들에 둘러싸여 있는 원충지대와 같은 역할지역이다. 石油富에서 얻은 경제력으로 원조정책에 의존하여 생명력을 유지한 국가이다. 이런 불안한 地政學的 환경 때문에 일찍이 소련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GCC국가였다. 쿠웨이트의 영향을 받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도 이란-이라크전쟁중인 1985년에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1961년 쿠웨이트가 英國으로부터 독립할 때 始作되었다. 압바스제국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지금의 아랍세계를 지원하였던 이유에서 이라크는 75년부터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바스라지방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스만 터키제국과 英國의 협정(1901년)이나 쿠웨이트의 사바王家와 영국간에 체결한 1899년협정에서 쿠웨이트가 바스라지방의 일부로 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라크의 주장이다.

실제로 쿠웨이트는 18세기초에 사우디아라비아반도 내륙에서 이민온 아나이자부족에 의하여 세워진 국가이다. 이를 英國이 오스만제국과 제정러시아세력을 견제하려는 완충지대로 활용하면서 쿠웨이트사바군주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로써 쿠웨이트는 오스만제국하에서 자치권을 누릴 수가 있었다. 쿠웨이트인들은 이라크와 통합되어 2등국민의 신분이 되고 쿠웨이트경제력으로 이라크인을 먹여 살린다는 논리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라크는 英·佛식민정책의 유산으로 아랍국가들이 분열되었으며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시리아는 레바논을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이란은 바흐레인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는 OPEC산유쿼타를 초과생산하여 유가를 하락시켰다. 이로써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이라크는 石油輸入의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② 이라크와 쿠웨이트국경지대에 있는 루마일라유전에서 24억달러상당의 이라크 원유를 쿠웨이트가 불법채굴하였다는 항의가 있었다.

③ 이라크의 전비체무를 쿠웨이트가 조건없이 청산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그외 실질적인 요구는 전쟁복구를 위한 쿠웨이트의 경제지원과 페르시아만내 항구개발을 위한 쿠웨이트국경지대일부를 양보하고 움 카스트 항구 앞에 있는 전략도시인 부비얀과 와르바라는 2개섬을 양도 또는 조차를 요구하여 왔었다. 1973년 국경분쟁과 1976년 국경분쟁도 같은 요구조건을 이라크는 쿠웨이트에 강요하였다. 이라크의 요구를 들어주면 쿠웨이트는 페르시아灣해안에서 이라크에 귀속되어 이라크에 언젠가는 흡수통합된다는 사실에 불안해 하여 왔었다.

후세인의 쿠웨이트합병은 최대한의 정치, 경제이익을 얻으려는 이라크정책전략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선군사작전으로 얻은 것을 後政治協商的 양보조건으로 이용하는 중동식 힘의 이론이다.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1982. 6)과 英國의 포클랜드침공, 美國의 그라나다와 파나마침공 훨씬 앞선 1979년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등의 힘의 이론에 의한 정치환경에서 이라크의 후세인도 아랍민족주의의 성전과 외교전쟁을 치루고 있다.

쿠웨이트가 회복되어도 과거의 쿠웨이트라는 정치실체

로 존재하기는 힘든 환경변화가 이미 페르시아灣에서 일어나고 있다.

4. 美國의 對이라크정책과 UN安保理의 무력사용 5개항 결의안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을 중대한 정치위협으로 판단한 美國 부시대통령은 UN을 통한 對이라크제재조치를 취하였다.

UN安保理긴급소집과 인도양과 지중해 항로를 포함한 전함들을 페르시아灣에 파견하였다. 더욱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合併(8월 8일)하자 4만여명의 공정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하였다. 美中部 사령부가 리야드로 이전하는 조치등으로 신속한 군사개입으로 아랍세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부시대통령의 對中東정책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는 美·蘇의 동반시대인 데탕트환경에서 지역분쟁 또는 소수민족분쟁에 강대국들이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억지력의 정치적 시험이기도 하다. 새로운 국제정치환경에 맞는 질서가 정착되기도 전에 발생하는 어떠한 질서과괴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헬싱키선언의지이기도 하다.

8월 6일 UN安保理의 경제봉쇄결의와 8월 25일 UN安保理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통과는 美國의 정치·외교의 승리이기도 하다.

美國의 레이건행정부는 리비아(1976)와 이라크(1980~88)에 경제봉쇄조치를 취한바 있다. 특히 호메이니 옹과 레이건의 대결인 유조선전쟁은 페르시아만전쟁이란 확대해석까지 하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인 유조선호송작전으로 국제경제를 회복시켰었다.

지금 부시대통령과 후세인 대통령의 대결도 페르시아灣에서 에너지원을 보호하려는 에너지전쟁과 같다.

UN의 경제제재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기위하여 美國도 다국적군대라는 이름으로 페르시아灣에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UN安保理정책보다 앞서기는 부시의 對이라크제재조치에 NATO와 EC국가들중에는 의견이 다른 국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665호인 UN安保理5개항 결의안은 美國의 군사행동에 합리성과 정치적 명분을 부여하였다. 군사지휘통제에 있어서는 UN정신이라는 이름이 부여되기 때문에 美國의 지휘권은 제한적이지만 정치적인 의미로 美

國시민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8월 2일부터 25일까지 660호에서 665호(663호는 없음)라는 5개의 UN安保理결의는 美國의 정책을 소련과 아랍국가를 비롯한 전세계국가들이 합의에 의하여 지지하는 협약이다.

소련은 중앙아시아문제와 특별한 中東외교문제로 아직까지도 UN정책을 지지하지만 군대를 파병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련이 어떤 경우에는 과거처럼 강대국으로서 중재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집트는 美國이 매년 지원하는 21억달러의 경제원조의 수혜국으로서 美國의 對이라크제재조치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시리아는 이란을 지원하였던 과거의 정책 때문에 이라크와는 불편한 관계이다.

美國은 페르시아灣에서 석유공급원을 확보하며 적정 석유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럽과 우방을 지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최대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페르시아灣에서는 국제경제의 사활적 변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권내에서 이집트와 파키스탄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역안정환경을 만들려고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를 위해서는 석유를 지켜야 하며 이슬람과 아랍을 위하여서는 聖地를 지켜야 한다.

美國은 페르시아灣의 안보를 카터독트린으로 이익사활지역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오스만帝國에서 16세기의 포르투갈로 다시 英國에서 美國으로 페르시아灣의 주인은 바뀌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안착되고 페르시아灣에 새로운 경찰국가적인 세력균형이 형성될 때까지 후세인정책과는 관계없이 美國은 경찰국가로서 이 지역안보를 다국적군이라는 이름으로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치변수에 따라서 아랍인의 反美感情의 진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봉기적인 민족분규를 3년이상 끌어오고 있지만 국제여론의 추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민족은 후세인의 군사력과 정치영향력을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 페르시아灣의 外交戰爭과 國家經濟利益關係

후세인의 외교전쟁은 쿠웨이트주재외국공관 폐쇄조치를 취한 8월 21일부터 시작되었다. 8월 25일까지 공관폐쇄시한을 두고 8월 24일 美F15이글전투기의 초계비행과 이라크미그 23기의 로켓트와 기관포사격은 美國과 이라크의 정면군사대결위험까지 보였지만 후세인의 협상입장선회로 외교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외국공관폐쇄시한인 8월 25일 UN安保理는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665호決議案을 채택하였다. 蘇聯과 中國의 UN정책지지에 대한 후세인의 심리적 반응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세인은 페르시아灣에서 자국선박들에게 UN 다국적군의 검문, 검색에 응하라는 명령과 쿠웨이트주재 외국공관을 무력으로 폐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8월 25일 쿠르트 발트하임 전UN사무총장의 개인적인 바그다드방문과 외교협상노력은 오스트리아, 95명만을 대통령전용기로 발트하임대통령이 구출하여 서방유럽의 단결의지를 깨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발트하임의 외교협력환경조성과 때를 같이하여 하비에르 데 케야르 현UN사무총장이 이라크에 협상제의를 하자 이를 수락한 이라크의 태도는 美國과의 외교전쟁에 군사적인 위험분위기를 완화시킨 협상국면을 만들었다.

8월 31일 케야르사무총장과 이라크 외무장관인 타리크 아지드장관과의 會談과 8월 31일 열리는 아랍연맹의 무장관회담은 페르시아灣의 분위기를 협상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8월 27일 美國부시정부가 이라크외교관 36명을 추방하는 강경정책에 이라크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외교적 제재조치를 미국에 통보하고 있다. 더우기 프랑스도 이라크인의 거주제한조치를 발표하는 등 페르시아灣은 외교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페르시아灣의 쿠웨이트영해에 기뢰를 부설한 이라크의 강경입장이나 美國의 아카바灣봉쇄와 페르시아灣봉쇄는 이라크의 테러공격전술 또는 급진아랍민족주의자들이나 PLO의 테러전술에 의한 국제테러환경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가늠할 수 없는 군사위험지역이 페르시아灣이다.

8월 29일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19번째의 省으로 선포하여 이라크 행정구역으로 인정하는 주권박탈행위는

더욱 문제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라크는 외국인여성과 아이들의 출국허용을 발표하는 등의 협상 분위기를 최대로 만들고 있기도 하다. 이라크의 대미국 강은책은 부시의 강경한 입장으로 큰 진전이 없지만 이 지역상황변화의 틀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美國과 UN에 대한 정치명분과 이라크의 정치명분은 자국민에 대한 설득력으로 필요한 것이다.

정치협상과 정치이익을 위한 작은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가진 페르시아灣의 외교전쟁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과 터어키의 特別한 이라크와의 관계와 UN 정책은 이 양국을 가장 정치,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

이란은 페르시아灣 에너지전쟁으로 전후복구경제환경을 맞이하고 있으며 가장 큰 정치이익을 차지하고 있다.

소련도 무상에 가까운 석유공급참입이 없는 환경에서 페르시아灣에 강대국으로 정치역할까지 美國과 분담함

으로써 조금이라도 오른 석유수출환경과 강대국정치환경이익을 차지하였다.

이집트는 아랍연맹복귀와 이 기구를 통한 중재노력을 아랍권에서 찾지 못하고 유럽과 아랍을 연결시키는 협상적 환경을 위한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집트 무바라크대통령은 아랍연맹에 복귀한 만큼 정치영향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美國의 부시대통령에게 이익과 명예를 줄 수 있는 인물도 후세인이며 손해를 줄 인물도 후세인이다. 1992년 선거를 맞이하는 부시의 고민과 아랍민족의 새로운 기수자리를 차지한 후세인의 맞부딪침이 페르시아灣의 위신정치환경을 만들고 있다.

페르시아灣의 에너지위기환경이 해소된 후에 나타날 새로운 정치질서에서 이익을 차지하기위한 서방 및 아랍국가들의 보이지 않는 경험현상이 이 지역정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페르시아灣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영원히 잔존한 분쟁 지역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바로 이것이 부시의 고민이다.♣

인생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당신을 위하여

인생에 피로움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피로움이 있으므로 인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생의 피로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활을 쏘는 사람이 과녁을 맞혀야 하듯, 아물든 맞혀야 할 하나의 과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뇌는 도피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도피하려면 도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똑바로 바라보고 꿰어야 할 하나의 과녁이다. 활을 쏘는 사람이 과녁을 꿰듯이, 인생의 피로움도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슈와이트〉

최고로 가치있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갖가지 조건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굉장히 복잡하고, 실패할 염려도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조건을 찾기에 열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조건을 찾는 동안에 우리는 통찰력을 기르고, 냉혹해지고, 책임이 강해지고, 독립심이 강해지는 훈련을 할 수 있다.

〈F.니체〉